



보이스피싱 피해 줄었지만 신종수법 횡행

올해 81건 작년보다 51% 감소... 피해액 66억→33억
기관사칭·대출빙자 많고 신종 생활 밀접 수법도 등장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신종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건)보다 51.5%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44%)보다 7.5%p 높은 수치다.

피해액도 줄었다. 이 기간 피해액은 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억원)에 비해 48.9%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 보면 주요 피해 연령대가 달랐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 31명 중 19명(61.3%)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줄었으나 1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7% 증가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접근한 뒤 금감원·검찰을 사칭해 명의도용이나 범죄 연루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50명 중 45명(90%)이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3건에서 올해 50

건으로 줄었고 1건당 평균 피해액도 2589만원에서 1753만원으로 32% 감소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피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대표 수법으로 꼽히는 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속에 최근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도, 정책자금 지원 안내 등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변형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서다.

관세청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으며

금전을 편취하거나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위임장을 제출해 주민등록등본을 떼려는 민원인이 있다”며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나 긴급 지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속여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사칭·대출빙자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상담·경제·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서귀포서 차량 3대 충돌... 60대 운전자 사망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해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분쯤 서귀포시 서흥동 서귀포여자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 B씨 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금어기 중 소라 불법 채취 행위 잇따라

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5명 적발·조사

소라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4·28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5명이 제주시지역 해안가와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추차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

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제주해경은 여름철 해안가·갯바위 등을 중심으로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금어기 중 소라를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어기와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새 교육감 IB 확대 기조... 신중 접근을”

제주교총, 고 교육감 정책 과제 관련 제언

오는 9일까지 교육감 공약 현장 의견 접수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정책 과제에 ‘IB DP’ (IB 고교 과정)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제주교총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교육감이 6·3 지방선거 후 보 당시 전달했던 정책제안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되 IB 학교의 양적 확대는 제한하고 모든 학교가 질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잡힌 발전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 준비위가 발표한 공약 과제에는 ‘IB DP 고등학교 추가 지정’, ‘한국형 IB 모델 개발’ 등 IB 확대 기조가 담겨 있다”고 판시했다. 박소정기자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의 정책 과제로 확정된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초·중·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제주교육 AI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학력 신장 및 AI 교육선도 과제와 방향을 같이 한다”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해당 공약들이 전시장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교총은 고 교육감 공약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설문 결과를 분석해 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향후 공약 이행 점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20대 지게차 사망사고

경찰, 농협 관리자 입건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농협 관리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농협 관리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사측의 운전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돼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의 유가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과자봉지 물고 다니는 까치 7일 제주시 도남동 인도에서 까치 한 마리가 과자봉지를 물고 주변을 살피고 있다.

강희만기자

합의금 노려 ‘성폭력 무고’한 부부 실형

제주지법, 징역 2년·1년 선고

합의금을 노리고 유혹주점에서 알게 된 남성을 성폭력으로 무고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7일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부부 사이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남성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내기로 B씨와 공모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담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또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소정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가입문의 064)758-006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